

자녀성교육 어떻게

마 은 영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울산사업소 청소년상담실

Q

아들이 요즘 공부도 안하고 여자친구 문제로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고1때부터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해 왔다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고 어 제밤에는 잠도 못자십니다. 성적도 상위권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자 친 구 사귀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성관계까지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고 저도 성에 관한 얘 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하는지 쑥스럽기도 하고....

공부를 잘 하려면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한약도 많이 먹고 등산도 자 주 가며 건강을 단련시키는데는 신경을 많이 썼지만 성교육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무척 모범적이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말 남의 얘기처럼 들렸 던 일들이 제 자식 문제로 닥치니 난감하고 답답합니다. 자녀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합 니까?

A

자녀문제로 고민하시는 부모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며 무척 당황스럽고 놀랐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춘기 자녀의 성교육을 어떻 게 해야 할지 모든 부모님의 공통된 고민이라고 여겨집니다.

성교육은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어렸을 때부터 일상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 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유교적, 도덕적인 관습 속에서 자란 부모님 세대들은 “크면 저절로 알게된 다.”라는 식의 단절된 대화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자연스런 성교육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와 평소 마음 편히 대화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성실히 대답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꾸짖거나 얼버무리버리는 식의 대답은 호기심만 생겨서 PC통신이나 영상매체 등을 통해 왜곡된 성 지식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해야 하나요?

성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일상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 평소 마음 편히 대화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성실히 대답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드님의 생각과 감정을 아버님도 청소년기를 겪어서 잘 알고 계시므로 세대는 다르지만 충분한 대화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경험담과 조언을 들려 줄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교육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기는 성적인 자극을 받으면 성충동이 쉽게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성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과 이성교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성에 관한 흥미와 관심은 있지만 숨기고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편안히 대화하는 자세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이성교제를 금하면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으므로 부모님은 항상 사랑과 관심으로 자녀를 보살피고 있음을 자녀가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버님의 속상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아드님에게 충분히 전달하세요. 아울러 요즘 청소년 문화를 이해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청소년기의 이성교제는 인격형성과 자아발전을 위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이성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과의 만남은 친구로 머물지 않고 성적 욕구가 생겨 성관계로 이어 질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인 후유증이 올 수 있음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청소년기의 성적인 에너지를 운동이나 건전한 취미활동, 학업에 전념하는 것 등으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사랑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당장은 힘이 드시겠지만 한번 더 아드님을 믿어 보십시오.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있는 한 아드님은 현재 상황을 잘 극복하고 올바르게 멋진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DPFK**